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장로 투표, 다음 주일 공동의회서

우리교회 당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석서 제 58조 3항에 의거, 제 4대 장로 후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오는 6월 2일 공동의회를 열어 투표로 선출하기로 하였다.

- ① 이영기 ② 성준경 ③ 김영준 ④ 김상철 ⑤ 서문석 ⑥ 이재권
⑦ 김일용 ⑧ 박두호 ⑨ 하영수 ⑩ 노송성 ⑪ 왕경래 ⑫ 이제원
⑬ 윤찬오 ⑭ 박정선 ⑮ 허희철 ⑯ 임상현 ⑰ 권영복 ⑱ 임훈규
⑲ 박동춘 ⑳ 조정식 ㉑ 황정욱 ㉒ 이복규 ㉓ 이관규 ㉔ 홍성주

이들 중 7명을 선출케 될 이번 공동의회는 주일 II부 예배 후 소집된다. 1차 투표시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7명이 되지 않을 경우 당선자를 제외한 남은 수의 배수를 득표순으로 다시 천거하여 찬양예배 후 재투표를 하기로 하였다.

총회헌법 6장 40조에 명기된 바에 따르면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디모데

전서 3장 1~7절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번 공동의회를 앞두고 당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기를 온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은혜롭지 못한 세사적 방법이 동원되는 것을 금한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의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을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음모에 빠질까 염려하라”(딤후 3:1-7).

오세아니아 복음화의 길 모색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 진행 중

오세아니아주와 그 주변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가 20일에 시작하였다.

오늘 간증과 소개의 순서 가져
수료감사예배 30일(수) 오후 7시

세미나에 참가한 호주, 뉴질랜드, 피지, 사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목회자들은 새벽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여 오전에는 교회성장 원리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한국의 여러 교회와 기독교대학, 신학교, 성서공회 등을 방문하여 한국교회 성장원리를 배우고 있다. 다락방모임을 통해 소그룹 운동의 실체를 보고 배우며 기도원을 찾아 통성기도와 합심기도를 배우는 기회도 가졌다.

오늘 참가자들은 교회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을 참관하게 된다. 찬양예배 시에는 세미나에 참가한 목회자들의 소개와 간증 순서도 있다.

또한 내일은 목회자신학세미나 현장을 찾아 목회자들의 재교육 현장을 보며 목회자세미나에 참가한 한국의 목회자들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강의와 토론, 견학 등을 통해 배운 것을 자국복음화에 적용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모임을 가진 후 29일(수) II부 예배 시간에 폐회예배를 드림으로써 세미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미 각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해외의 목회자를 권역별로 초청하여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자국복음화에 기여케 하려는 김치신학세미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교전략으로 인정받아 세계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모임인 로잔중앙위원회의 공인기관이 됨으로써 세계교회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96 홍해작전 진군준비 완료

'96 홍해작전준비위원회는 7개부서 참모 조직과 행사개요를 확정하는 등 진군준비를 완료하였다. 확정된 '96 홍해작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표어: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
- 주제성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예레미야 33장 3절)
- 행동강령: 1. 기도의 벽돌을 전교인이 함께 쌓는다.
2. 기도의 불기둥을 새벽마다 더불어 일으킨다.
3. 기도의 능력으로 일제히 일어나 성전을 건축한다.
- 일시: 1996년 6월 6일(목) ~ 6월 23일(주일), 18일간 매일 새벽 5시 ~ 6시
- 새벽기도회 강사: 이종윤 목사

창세기
강해



꿈만은 아니었다

(창세기 41장 1 - 40절)

이종운 목사

꿈은 대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꾸지만 그중 끝까지 기억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시73:20).

1.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41장에서 우리는 요셉이 해몽한 바로의 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꿈은 오늘날 우리들의 것과 다릅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도 그러했고, 감옥에서 요셉이 만난 바로의 술 따르는 관원장의 꿈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따르는 관원장이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구원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관원장의 공로로 요셉이 출세한 것처럼 되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생은 사람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대로 역사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첫번째 꿈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실한 암소 일곱마리가 하수에서 올라왔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마리 암소가 올라와 살진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두번째 꿈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 매우 충실한 한줄기 가지에서 일곱 이삭이 무성하게 달렸습니다. 그후에 쇠약한 다른 이삭 일곱이 나와 무성한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창21:1).

바로 꿈은 마치 그의 마음처럼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술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보다 더 분명한 뜻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놓치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받은 노예가 어떻게 감옥에서 궁궐로 갈 수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볼아야 합니다. 시기와 음모와 온갖 모략으로 모든 희망의 줄이 끊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회생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써 요셉은 출옥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롬8:28).

2.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요셉

바로 궁궐의 술사와 철학자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철학자들의 마음을 궁허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바로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을 해석할만한 이들에게서 모든 지혜를 막으셨습니다. 이때 술 따르는 관원장이 등장하여 자기 경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 술 따르는 관원장의 경험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은 부름을 받고 왕궁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왕궁으로의 발걸음은 매우 신속하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고,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보디발의 가정집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모략을 당해 감옥살이를 하고, 꿈을 해석하게 되어 바로의 반지를 받고 금마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드라마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가 당황스러울만치 급변하며 극적입니다. 요셉은 그 모든 삶 속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한 적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다. 술 따르는 관원장에게 요셉은 해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40:8).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41:16).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던 바로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41:39).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한 요셉은 바로의 꿈 해몽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하고 해석을 시작합니다. 7년 풍년 후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요셉을 세워 애굽을 치리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풍년이 든 7년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 시에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요

셉의 큰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3. 요셉이 받은 복

바로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33, 38, 39). 30세의 청년 요셉에게 나라를 맡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요셉의 초자연적 힘을 본 바로는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와 같은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는 불평하기 쉽고, 불의와 짝하기 쉬우며 환경이 여의해지면 교만하거나 자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믿으면 고난의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변영의 때에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꿈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신 역사였습니다.

✦ 순례자 컬럼 ✦

“실패자”

아담 이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의 낙인이 찍혔다. 단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다.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 야곱, 요셉도 실패했고 탁월한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실패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외쳤다.

도무지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거짓과 욕심의 이기가 묻어 있는 것을 누가 부인할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다.

완전한 성공자가 없었지만 다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이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승리자,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오세아니아에도 성령의 불을!

이번 김치신학세미나에 오신 분들의 필요를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가자의 프로필과 기도제목을 씁니다.



호주

① 필립 존 브래드포드



1. 영국 국교회 성 게오르그교회 목사
2. 1948년 5월 8일생
3. 부인과 1남 3녀
4. ① 영국 국교회 시드니 지역 수석 목사
② 시드니 선원선교회 이사장
5. ① 우리교회 내에 새로운 전도의 비전을 위해
② 우리교회 주변의 부유층 주민들이 그들의 영적 필요를 볼 수 있게 되기를
③ 아내의 병 낫기를 위하여

② 토마스 듀핀

1. 드루몽 장로교회 목사
2. 1928년 7월 3일생
3. 부인과 1남 1녀 8명의 손자, 손녀
4. ① 30년간 지역사회와 은퇴 노역자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음.



- ② 작년 12월부터 한국 학생을 위한 전도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음.
5. ① 한인교회의 성장을 위해
② 우리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③ 선교사 지망생인 지우와 형제와 그의 아내, 그의 가정을 위해
④ 미자립노인을 돌보기 위한 독립적인 건물의 건립을 위해
⑤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③ 짐 카임



1. 성 이베스 침례교회 목사
2. 1936년 4월 5일생
3. 부인과 2남
4. 매주 이틀씩 그리스도인 복지기관의 책임자로서 일하고 있음.
5. ① 파푸아뉴기니아 침례교 연합 신학교의 교장으로

■ 이름

1. 소속교회,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현재의 사역
5. 기도제목

초청을 받았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미래를 축복해 주기를.

- ② 교회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기를
- ③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 ④ 스테판과 테리(장남과 자부)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미카엘(차남)과 그의 가족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건고해지도록

④ 필립 나이프



1. 영국 국교회 리드콤 교구의 스테판교회와 베
랄라 교구 제임스교회 목사
2. 1939년 4월 6일생
3. 부인과 1남 2녀
4. ① 영어성경 강의
② 복합문화 극복을 위한 영어 강좌
5. ① 우리교회의 성도들이 전도 사업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②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민족을 향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⑤ 네시아시 콜로

1. 시드니 통가교회 목사
2. 1939년 4월 6일생
3. 부인과 1남 2녀
4. ① 동안어(방언)설교 및 영어 설교
② 시드니 원주민을 위한 목회
③ 노동문제 상담



5. ①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② 원주민 선교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③ 한국 민족과 태평양 군도의 주민을 위하여

⑥ 팬지 마후이아리키



1. 쿡 아일랜드 장로교회 목사
2. 1948년 10월 8일생
3. 부인과 2남 4녀
4. ① 성도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사역
5. ① 교회의 성장을 위해
② 청년 사역을 효과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③ 개인적인 사역을 위해
- ④ 교회의 장로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오세아니아에도 성령의 불을!

⑦ 브리안 케이드 로우

1. 호주 연합교회 목사
2. 1938년 6월 20일생
3. 부인과 2녀
4. ① 지역복음화 사역
5. ① 시드니 거리의 잃어버린바



■ 이름
1. 소속교회,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현재의 사역
5. 기도제목



인도네시아

- 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 ② 시드니에 있는 호주 연합교회의 한인 성도들을 위해
 - ③ 나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항한 것이 되도록

▼ 캄치세미나 현장은 같은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서로 만나지 못했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피지

⑧ 나라안 널

1. 로토카 침례교회 목사
2. 1936년 12월 14일생
3. 부인과 1남 3녀
4. ① 피지 성경대학 교장
- ② 교회개혁
- ③ 복음전파 사역
5. ① 남태평양의 침체된 교회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 ②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한 자들을 피지 성경학교로 인도해 주시기를
- ③ 아들 디도를 위해



⑨ 안드레이 사무엘 자렐

1. 모리아 크리스찬교회 목사
2. 1954년 4월 13일생
3. 부인과 1남
4. ① 자카르타 카리바루에서 목회
- ② 성경학교 두곳에서 강의
- ③ 부흥회의 설교
- ④ 상담사역
5. ① 자카르타 카리바루 교회의 양적인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
- ② 보다 나은 강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후원자를 위한 기도)
- ③ 보루네오 밀림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⑩ 이매니드 마스트라

1. 생명의 양식교회 목사
2. 1949년 12월 22일생
3. 부인과 3녀
4. ① 담임목사
- ② 신학교에서 강의
5. ① 하나님께서 정부의 탄압과 견제가 시작된 인도네시아 교회를 강하게 해주시길
- ② 가까운 장래에 인도네시아 전역이 구원받도록
- ③ 인도네시아의 마을마다 자매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 ④ 인도네시아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일꾼 훈련을 위해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들을 내어쫓고 있음)



⑪ 잡 뽀 림

1. 글로리아교회 목사
2. 1956년 5월 1일생
3. 부인과 1남
4. ① 실업인 훈련
- ② 음악선교회 운영
5. ① 영적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 ② 6월에 출산을 앞둔 아내를 위해
- ③ 크리스찬 스쿨(고등학교) 건립 재원의 충당을 위해





오세아니아에도 성령의 불을!

12 무사 살루수

1. 토라자교회 목사
2. 1958년 3월 4일생
3. 부인과 3남
4. 교회에서의 목회
5. 나와우리 가족에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 이름

1. 소속교회,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현재의 사역
5. 기도제목



말레이시아

13 데이비드 오바다 세티완

1. 망가 벵사르 예수교회 목사
2. 1954년 3월 31일생
3. 부인과 2남 1녀
4. 목회와 상담
5. ① 우리교회 성도 전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② 개인전도를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할 수 있도록
③ 수요일저녁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동기가 부여되기를
④ 김치신학세미나를 마치고 돌아가 새벽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⑤ 소그룹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위해



16 바빙톤 웰링톤

1. 루스란 교회 목사
2. 1955년 9월 14일생
3. 부인과 2남
4. ① 교회에서의 목회
② 선교위원회 의장
5. 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갱신되어지기를
②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17 다니엘 푸파라라자 아야칸누

1. 테무 감리교회 목사
2. 1955년 2월 18일생
3. 부인과 1남 1녀
4. ① 신학교 학장
② 강의, 부흥집회나 기도모임, 전도 등에 관한 세미나 및 워크숍 인도
5. ① 신학교의 학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② 민족(말레이시아)의구원, 특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디안들에게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14 시몬 토양 토딘갈로

1. 자카르타 통코남 교회 목사
2. 1954년 9월 24일생
3. 부인과 2남 1녀
4. 자카르타 통코남 교회에서의 목회
5. ① 제 7차 김치세미나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② 인도네시아에 두고 온 가족들을 위해



15 요하네스 아우넬리우스 위자아

1. 망가 벵스타르 예수교회 전도사
2. 1963년 7월 15일생
3. 부인과 1남 1녀
4. 목양 사역
5.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교회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부탁합니다.



18 바투말라이 사다얀디

1. 영국 국교회 서말레이시아 교구 목사
2. 1946년 3월 10일생
3. 부인과 1남 1녀
4. ①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운영
② 빈민층 구제사업
5. ① 빈민구제사업을 위한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② 장애인 학교 건립할 수 있도록
③ 평신도 지도자 훈련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오세아니아에도 성령의 불을!

19 데바라캄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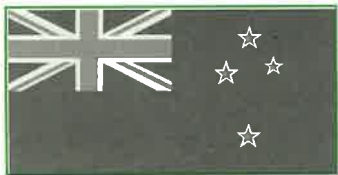
1. 타무 감리교회 목사
2. 1954년 4월 2일생
3. 어머니와 부인과 2녀
4. ① 찬양예배 사역
② 어린이 전도, 청년전도 사역
5. ① 지도력 향상을 위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② 어린이 사역에서 관습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확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③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④ 하나님께서 사역에 관한 열정을 내 속에 지속시켜 주시기를

20 박 흥 앞

1. 씨·엠·씨 감리교회 목사
2. 1941년 3월 25일생
3. 부인과 딸, 사위, 아들
4. ① 선교위원회 의장
② 문서국 위원장
③ 지역 감독
④ 교회성장위원회 회원

5. ① 예배당 건축을 위해
② 올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가질 선교대회를 위해 (약 130명의 목회자가 참석할 예정).



뉴질랜드

21 로버트 존 바이레이

1. 하나님의 성회 목사



2. 1944년 3월 17일생
3. 부인과 1남 1녀
4. 교회에서 부목사들을 지원
5. ①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②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③ 우리교회주변에 거주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물질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④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시여 사명감을 불일듯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 이름

1. 소속교회,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현재의 사역
5. 기도제목

22 메리 카톤



1. 마오리장로교 목사
2. 1930년 4월 28일생
3. 남편과 12명의 자녀
4. 지역사회의 노인 전도및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사역.

5. ① 마오리족이그들의 문화 위에 계신 주님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② 마오리족을위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그들의 교회가 자라나도록 도우시기를
③ 예수님의 권세와 주님되심의 능력으로 개인과,가정과,동동체와, 민족과, 세계의 폭력을 이길 수 있도록

23 마린 리 다인

1. 뉴질랜드 감리교회 목사
2. 1935년 4월 23일생
3. 부인과 2남
4. 오클랜드 감리교회 지역 감독



5. ① 오클랜드 지역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되기를
② 오클랜드의 감독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③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24 메자 졸 케팔리

1. 노스웨스트 침례교회 목사
2. 1959년 8월 18일생
3. 부인과 1남 3녀
4. ① 지역사회 가정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
② 어린이를 위해 방과 후 전도 프로그램 운영 중
③ 무교회주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고 있음).
- ④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신앙교육 프로그램운영 중



5. 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② 좀더 넓은 대지와 교회 건물을 허락받을 수 있는 은총을 입기를
③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이 충만하도록
④ 청년 사역자들을 위해서
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세아니아에도 성령의 불을!

⑤ 로버트 스코트 밀스



1. 영국 국교회 타카푸나 교구 목사
2. 1934년 3월 29일생
3. 1남 2녀
4. 타카푸나지역 교구장
5. 교구의 사역과 교구 내 가정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이름

1. 소속교회, 직분
2. 생년월일
3. 가족
4. 현재의 사역
5. 기도제목



서사모아

⑦ 글라디스 메이 스틸스

1. 오라케이 장로 교회 목사
2. 1931년 3월 6일생



3. 남편과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의 자녀
4. 목회와 성례전에서의 설교, 교육, 지역사회 정의를 위한 사업들, 한인교회를 비롯한 복합문화 선교사역
5. ① 교구의 재정문제
- ② 청년사역자들을 위해
- ③ 교회학교의 교사들을 위해
- ④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어 세계가 종족과 계급과 인종과 성별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하나임을 깨닫게 되기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 시옵소서"

⑧ 밀로 실라타

1. 평화 채플교회 목사



2. 1959년 2월 1일생
3. 부인과 2남 3녀
4. 성경학교 학장

5. ① 성령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셔서 그의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 ② 성부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내 안에 지속적으로 가르쳐주시기를
- ③ 태평양군도에 영적인 회복이 있도록



⑦ 스트라우트 아렐임 보질

1. 오테아로아 장로교회목사
2. 1953년 12월 12일생
3. 부인과 2남 1녀
4. ① 아시아선교위원회 고문
- ② 뉴질랜드의 중국인교회 시무

5. ① 오uckland의 타이완교회와 오테아로아교회의 연합을 위해
- ② 우리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해
- ③ 뉴질랜드의 중국인과 한인들의 청년선교사역을 위해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강의시간과 새벽기도회에서 자국의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참가자들



◀한국의 고궁을 찾아

▼예배와 새벽기도회 시간마다 동시통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향실



▼별관에서의 점심식사



길동무

다시 찾은 기쁨

○... 개강 첫 날, 오후 프로그램인 시내관광 중 첫 미아(?)가 발생했다. 뉴질랜드에서 온 메리 카튼 목사. 무려 12명의 어머니(실은 남편과 사별 후 재혼하여 7명의 자녀를 갖게 되었고, 5명은 입양한 자녀이다)인 그녀는 복잡한 지라도 출구에서 여러 차례의 탈출을 시도했음에도 맞은편에 뻗어 보이는 일행의 무리에 도저히 합류할 수가 없었다. 발을 동동 구르며 고향도 질러보았으나, 다른편에서 찾다가 지친 일행들은 버스를 타고 출발하고야 말았다. '낮선 도심 속에서의 절망'을 느끼고 있던 차에 다행히 인솔 책임자였던 부목사님을 만나 다음 행선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기도만 하던 일행은 반가움과 안도감에 "할렐루야"를 함께 외쳤다.

○... 사실 도착하는 날에도 두 분 목사님의 손가방이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다. 수송분과와 영접분과의 봉사자들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 가방 안에 든 여권과 지갑, 비행기표 때문에 대서관에 연락을 취하는 등 부산하게 뛰어다녔다. 기대치 못했던 순간에 품에 돌아온 가방을 꺼안으며 감격하던 참가자들은 누가 북을 15장에 나오는 잃었던 양, 잃었던 동전,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이들의 기

쁨을 떠올리며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었다고.

기억하고 기도해주세요

○... 피지성경대학 교장인 나라얀 넬 목사는 최근 인도·인도네시아·피지 등에서 '타협과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힌두교·불교 등 타종교 지도자를 교회에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지는 등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뉴에이지의 'Inter-Faith'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같은 혼합주의 사상에 대해 넬 목사는 강력한 단절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지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고.

○... 식사시간마다 인도네시아 목회자들이 드리는 감사기도의 모습은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아직도 대부분이 가난하여 잘 먹지 못하는 본국 교회의 성도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라. 더욱이 최근 점증하는 정부의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에 진수성찬을 대하는 그들의 감회는 각별한 듯했다.

○... 인도네시아 내의 중국인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세티완 목사는 돌아가자마자 새벽기도회를 갖겠노라는 결심을 말하면서 현재 1000여 명의 교인이 출석

하고 있는 자신의 교회에 서울교회를 소개하고, 서울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영적인 부흥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서울교회와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치 맛 좋 ~ 다!

○...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곳에 오기 전에도 김치를 먹어 보았노라고 했다. 각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이미 김치세미나의 홍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듯.

○... "기쁘치 않습니까?" 일본인 여자 한 사람이 참가자들이 묵는 숙소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김치를 사러 왔더라고. 김치를 만드는 세미나인줄 알았던 모양. 이 이야기를 들은 세미나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김치국제판매상이라며 한바탕 폭소를 터뜨리기도.

○... 우리 밥상의 김치처럼 영적인 입맛을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 세미나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봉사자들의 뜨거운 사랑'이다. 전에 결코 보지 못했던 가슴 깊은 곳에서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진다고 했다.

21세기를 향한 선교·교육·봉사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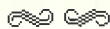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는 6월 3일(월)부터 5일(수)까지 서울 명성교회당에서 '선교·교육·봉사대회'를 갖는다. 전국 교회 목사, 장로, 평신도 지도자 2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대회에 우리교회에서는 30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의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종운 원 호 이순환 김명현 박귀환 박철훈 오정수 김태기 정병무 최종시 성준경 하영수 홍성주 김일용 왕경래 이관규 박두호 방계운 이신일 김은애 유복달 김동호 김경희 최경애 이승우 이영숙 주경자 이연숙 김영현 이안순

이번대회의 주재강연은 이종성 박사, 특강은 이종운 목사, 저녁 집회는 박선희 목사와 김삼환 목사, 새벽기도회는 나겸일 목사와 이용남 목사가 각각 담당한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관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 5월의 새가족 *

김현미 박진희 임낙식 신영순 정철환 전미애 윤영수 김병곤 정춘자 김재근 안부선 김안희 김성신 최정자 임영운 박종원 이향아 김현주 장래혁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 7차 김치신학세미나와 오세아니아 복음화를 위하여
2. 한국교회혁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 수료자들을 위해
3. 흥해를 믿음으로 건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